

‘추석 대전’ ... KIA 5위 지키기·광주FC 1위 굳히기

KIA, SSG·두산과 각각 원정 2연전 ... 파노니·임기영 ‘3승’ 노려 K리그 2, 광양에서 ‘옐로더비’ ... 광주 승리 땀 우승 8부능선 넘어

추석 연휴에도 그라운드는 뜨겁다. KIA 타이거즈는 원정길에서 5위 사수에 나서고, 광주FC는 ‘옐로더비’를 통해 우승 굳히기에 들어간다.

KIA는 수도권에서 추석 연휴는 보낸다. 6·7일 울산문수구장에서 롯데를 상대했던 KIA는 한반도를 가로질러 문학으로 이동했다. 8·9일 문학에서 1위 SSG를 상대하는 KIA는 이후 잡실로 옮겨 10·11일 두산과 대결한 뒤 추석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올 시즌 FA 최대 나성범을 영입하고, 미국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양현종까지 품으면서 KIA는 투타에서 확실한 전력 보강을 했다.

‘슈퍼 루키’ 김도영까지 KIA 유니폼을 입으면서 성적은 물론 흥행에서도 대박이 기대됐다.

그러나 새로 지휘봉을 든 김종국 감독이 특별한 색을 보여주지 못했고, 전력 극대화에도 실패하면서 5위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이 됐다.

5위가 KIA의 현실적인 목표가 됐지만 마지막 가능성까지 살려야 한다. 또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통해서도 높은 곳으로 향할 수는 있다. 그만큼 이번 ‘추석 대전’에서 승리 근성을 깨워야 한다.

문학이 KIA의 가을을 가능케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KIA는 올 시즌 SSG에 3승 10패의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학에서는 올 시즌 단 한 번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6경기에서 16득점, 35실점을 하면서 모두 졌다. 지난 시즌까지 더하면 문학 9연패 중이다.

갈 길 바쁜 SSG를 상대로 앞선 열세를 만회한다면 KBO 순위 싸움도 더 흥미로워질 전망이다.

‘3승’에 눈길이크다. 후반기 에이스로 통하는 토마스 파노니와 풀타임 활약 중인 임기영이 3승을 노린다.

파노니는 7월 14일 LG를 통해 KBO리그에

첫선을 보인 뒤 9경기에서 52.1이닝을 소화하면서 2.2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5번의 릴리피스타트도 기록했지만 2승 2패에 그치고 있다.

임기영도 6월 21일 롯데전 2승 이후 9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승리를 더 하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 불펜 등판에서 1세이브만 기록하고 있다. 임기영이 ‘피홈런’이라는 숙제를 풀고, 승리투수로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비 도중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김도영에게도 눈길이 간다. 김도영은 기술 훈련을 끝내고 7일 퓨처스리그에서 실전을 소화하면서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K리그2 광주FC는 전남드래곤즈와의 ‘옐로더비’에서 우승을 위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다.

광주는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3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극적인 승리의 여운을 이어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김포FC와의 홈경기에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찍었다.

이날 김포에 0-1로 끌려가던 광주는 후반 45분 운명을 바꿨다. 아론의 헤더로 1-1을 만든 광주는 후반 49분 기록된 이견희의 헤더로 2-1 역전극을 연출했다.

상대 수비 전술에 고전했고, 두 차례 골대 불운에도 올랐지만 ‘극단적인 공격’을 앞세운 이정호 감독의 전술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의 승부 근성이 만든 최고의 역전 드라마였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승점 72점을 기록, 2위 FC 안양(승점 62점)과 승점 10점 차 1위다.

11구단 체제로 운영되는 올 시즌 K리그2는 44라운드 일정 속 각 구단은 40경기씩 소화한다. 광주가 6경기, 안양이 7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K리그2 광주FC 선수들이 지난 3일 김포FC와의 37라운드 홈경기에서 이견희의 역전골이 나온 뒤 기뻐하고 있는 모습.

〈광주FC 제공〉

광주는 이번 광양 원정 뒤 14일 안양으로 가서 결승전과 같은 대결을 받는다. 안양의 추격 의지를 꺾고 매직넘버를 줄이기 위해 전남전 승리가 중요하다.

전남 입장에서 그렇듯 물러설 수 없다.

전남은 올 시즌 4승 15무 13패(승점 27)로 리그 10위에 머물고 있다. 지난 5월 안양전 승리 이후 11무 8패를 기록하면서 19경기 연속 무승에 빠져 있다.

시즌 중반 지휘봉을 잡은 이장관 감독 역시 프로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분위기도 그렇고 역대 전적에서도 광주가 11승 8무 6패로 전남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하지만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광주는 지난 33라운드 전남과의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후반 4분 산드로의 선제골이 나오는 등 경기를 주도하고도 임찬율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무승부

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승리가 간절한 전남에는 박인혁, 발로텔리, 김현욱 등 위력적인 한방을 갖춘 선수들도 즐비하다. 또 홈에서 진행되는 경기인 만큼 전남의 적극적인 공세도 예상된다.

광주가 빠른 공격 전개와 날카로운 세트피스로 전남의 골대를 뚫고 우승 8부 능선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영암군 민속씨름단, 추석장사씨름 타이틀 사냥



장성우



윤성민



오창록

전통의 강호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2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장사 타이틀 사냥에 나선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고성군 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7일부터 12일까지 경남 고성군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에선 남자부(태백급·금강급·한라급·백두급)와 여자부(매화급·국화급·무궁화급) 체급별 장사전과 여자부 단체전이 열린다. 참가 선수는 248명이다.

여자부 장사 결정전과 단체전 결승은 8일 치러지며 9일 태백장사(80kg 이하) 결정전, 10일 금강장사(90kg 이하) 결정전, 11일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 12일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정

12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려

백두급 장성우·윤성민 우승 도전
한라급은 오창록·차민수 힘 대결

전이 차례로 진행된다.

가장 주목받는 팀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이다.

장성우와 윤성민은 백두급 우승에 도전한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 대회 ‘디펜딩 챔피언’ 김진(중평군정), 올 시즌 3관왕을 달성하며 매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최성민(태안군정), 정창조(수원특례시정), 정경진(울주군정) 등과 살바싸움을 벌

인다.

한라급에서는 ‘최강자’ 오창록(영암군민속씨름단)과 베테랑 김보경(연수군정)을 비롯해 신예 김무호(울주군정), 차민수(영암군민속씨름단) 등의 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금강 트로이카’ 임태혁(수원특례시정)은 추석 대회 금강급 4연패에 도전하고, 태백급에선 올 시즌 5관왕을 질주 중인 노범수(울주군정)와 문준석(수원특례시정), 윤필재(의성군정) 등이 경쟁한다.

여자부에선 2017년부터 추석 대회 국화급(70kg 이하) 정상을 지켜온 임수정(영동군정)이 6년 연속 정상을 지키지 관심을 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시청 김국영, 200m 20초75 ‘대회신’

전국실업단체육상경기대회

한국 간판 스피리터 김국영(31·광주시청)이 제33회 전국실업단체육상경기대회 남자 200m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김국영은 7일 경상북도 예천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3회 전국실업단체육상경기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20초7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는 최창희(안산시청·21초23), 3위 이용문(서천군청·21초37)이었다.

올 시즌 한국신기록 도전을 위해 100m에만 주력했던 김국영은 다음 달 전국체전을 앞두고 200m에도 참가신청을 했다.

올 시즌 첫 200m 경기 출전이다. 김국영은 그동안 100m만 뛰었던 만큼 200m 실전 점검을 위해 이를 연습 트랙에 섰다.

결과는 역시 1위. 김국영보다 빠른 선수는 없었다.

예선에서 21초17을 뛰며 가볍게 몸을 풀 김국영은 결승에서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1위를 거머쥐었다. 여자경기에서 맞바람이 불었으나 남자 200m 경기 당시 0.9m의 뒷바람이 불면서 김국영의 기록 단축을 도왔다.

이 대회 남자 200m 기록은 21초02(임희남·10회)였으나 김국영이 20초75로 갈아치웠다.

김국영 자신의 200m 개인최고기록(20초51·2018년 6월28일 제7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는 못 미쳤으나 올해 첫 200m 경기임을 감



김국영

안하면 우수한 기록이라는 평가다. 남자 200m 한국신기록은 20초40(박태건·2018년 6월28일)이다.

전날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국영은 이날 200m 우승으로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국영은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16으로 결승선을 통과,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국영이 전국체전을 대비해 200m를 뛰었는데 올해 첫 실전임을 감안하면 매우 좋은 기록이다”면서 “남은 기간 훈련에 매진해 전국체전에서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임성재·김주형·이경훈·김시우 프레지던츠컵 골프 출전

이경훈(31)과 김시우(27)가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하게 됐다.

6일(한국시간) 인터내셔널 팀의 트레버 이벌먼(남아공) 단장이 발표한 추천 선수 명단에 이경훈과 김시우가 포함되면서 한국 선수는 이미 자격으로 출전권을 따낸 임성재(24)와 김주형(20)까지 4명이 올해 프레지던츠컵에 나가게 됐다.

올해 프레지던츠컵은 22일부터 나흘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개최된다.

프레지던츠컵 단일 대회에 한국 선수 4명이 한꺼번

에 출전하는 것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올해 대회에는 최경주가 인터내셔널 팀의 부단장을 맡아 총 5명의 한국 선수가 프레지던츠컵에서 활약하는 셈이다.

이날 발표된 단장 추천 선수로는 이경훈과 김시우 외에 크리스티안 베자위덴하르트(남아공), 세바스티안 무뇨스(콜롬비아), 캄 데이비스(호주), 테일러 펜드리스(캐나다)까지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존에 자격으로 출전이 확정된 선수는 임성재와 김주형 외에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코리 코너스(캐나다), 미토 페레이라(칠레), 애덤 스콧(호주)까지 6명이다.

/연합뉴스